

주자의 군권(君權) 전제 사상*

－『논어』의 “使臣以禮”장(3-19), “必也正名乎”장(13-3), “太伯至德”장(8-1)에
대한 주자의 해설을 중심으로－

박 성 규**

국문초록

전제군주의 권력을 적절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일은 모든 유학자들의 과제였다. 송나라의 주자 역시 이 방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사서』에 대한 주석서인 『사서집주』가 임금, 통치 계급 및 일반백성을 교육하는 기본 교과서로 자리잡도록 집필했으며, 그 안에 자신의 사상을 담았다. 예를 들면 『논어』에서 공자는 “임금은 신하를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심으로 섬긴다”고 말했는데, 주자는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부리면, 신하가 임금을 충심으로 섬긴다”는 구조로 바꾸었다. 임금은 신하의 충성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임금다운 도리를 다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공자는 “위나라에서 정치를 하면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는데, 주자는 이 말을 부자간에 권력투쟁을 벌인 위나라의 정치상황과 연결지어 해설했다. 두 부자(父子) 모두 도덕적 결함이 있으므로 모두 내치고 다른 왕자를 임금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 공자의 뜻이라고 풀이했다. 임금이라 하더라도 기본 도덕적 자질은 신하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임금 자리를 양보한 태백의 덕을 찬양한 공자의 말을, 주자는 태백이 아버지인 태왕에게 “은나라를 멸망시킬 뜻”이 있음을 간파하고 그 일을 인정할 수 없어서 떠나간 것이라고 해설했다. 실제로 은나라를 멸망시킨 무왕의 증조할아버지인 태왕의 시대에 이미 은나라를 멸망시킬 뜻을 품었다는 해설이다. 폭군 응징은 오래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런 마음에 사심이 없다면 역시 정당한 것이라는 파격적인 추론을 담고 있다. 요컨대 주자는 삼강오상에 비추어 위나라 임금의 탄핵을 주장했다. 삼강오상의 강조는 임금전제의 의미도 있었다.

[주제어] 주자, 공자, 논어, 논어집주, 군권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必也正名乎” 해설 |
| II. 삼강오상은 영원한 진리 | V. “泰伯, 其可謂至德也已矣” 해설 |
| III.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해설 | VI.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4929)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 sangol@hanmail.net

I. 머리말

전제군주 권력의 견제는 유학자들의 공통 과제였다. 공자는 정치는 각 분야의 유능한 대신들에게 맡기고,¹⁾ 임금 자신은 그런 신하들을 선발한 다음 감독만하고, 실제 정무를 직접 관장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²⁾ 생각을 가졌다. 그런 사상을 “무위함으로써 태평성세를 이룬 분이 순임금이었다.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자신을 단정히 하고 남면하셨을 뿐이다.”³⁾는 방식으로 주장했다.⁴⁾ 또 맹자는 임금이 선한 정치를 하지 않음은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선정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임금 잘못이다. 안 하면 결국 짐승과 다름없게 된다.⁵⁾ 무엇보다 임금에게 도덕적 결단을 압박하고 도덕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성선설의 목표였다. 또 동중서의 재이론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빌미로 임금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책을 반성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노화하면서도 효력 있는 사상 장치였다. 대대로 거의 모든 유학자들은 성선설의 진리성을 역설했고, (임금에 올리는 상소문에서) 재이론의 진리성을 적극 옹호했다.

주자(1130~1200) 역시 전제군주 권력 견제의 측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주자는 『사서』가 국가 정치 이념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백성이든 임금이든 모든 교육의 기초교재가 되도록 『사서집주』를 공들여 저술했다. 그가 『예기』(총49편)의 2편에 불과했던 「대학」과 「중용」을 4서의 위치로 격상시킨 것은, 修身(도덕적 수양론)을 모든 통치행위의 기반으로 삼아 임금도 이런 체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었다. 주자의 노력 이후 후대 학자 신하들은 미래 임금인 세자의 도덕교육을 담당할 때도 『사서집주』를 가르쳤고, 임금을 향해 도덕수양론을 정기적으로 강론하는 경연에서도 『사서집주』를 필수교재로 선택하게 된다. 『사서집주』는 주자의 대표작이다. 그는 四書 주석을 통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포부를 가졌다. 『논어집주』에도 그의 사상적 구도가 은밀히 펼쳐져있다.

진시황의 전제적인 권력행사와 그 파탄에서 보듯이 군주 권력은 적절하게 견제되지 않으면 군신 모두에게 재앙이다. 주자는 『문집』과 『어류』 등 방대한 저술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⁶⁾ 이 글은 다만 『논어』의 세 구절에 대한 주자의 해설에 나타난 그의 사상을 살펴본다. 이 해설들은 『논어』 해당 구절들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자만의 독특한 안목이 반영되어 있고, 그가 진정 주장하려는 바가 숨어있다고 여겨진다.

1) 『논어』 8-20, “舜有臣五人而天下治.”

2) 『논어』 8-18, “子曰: ‘巍巍乎, 舜禹之有天下也而不與焉!’”

3) 『논어』 15-5, “子曰: ‘無爲而治者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4) H.G. 크릴, 『공자, 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1997, 198~199쪽.

5) 『맹자』 8-19, “孟子曰: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

6) 이상익(2009)은 주자의 정치사상을 논하면서 “君主權, 宰相權, 諫官權을 분립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했고” “군·신·민의 의사 소통과 공정한 수렴을 지향했다”고 설명한다.

II. 삼강오상은 영원한 진리

『논어』에서 “자장이 공자에게 물었다. ‘열 왕조 뒤의 일도 알 수 있습니까?’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따랐으니(因) 덜고 보탬(損益) 바를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덜고 보탬 바를 알 수 있는 만큼, 주나라를 계승하는 경우 앞으로 백 왕조라도 알 수 있다.’”⁷⁾

주자는 『논어집주』에서 “그대로 따름(因) 것은 삼강오상을, 덜고 보탬(損益) 것은 문질삼통(文質三統)을 말한다”는 마응의 학설을 인용하며, 이렇게 풀이했다.

내 생각에, 삼강은 군위신강·부위자강·부위처강이고, 오상은 인·의·예·지·신이다.……삼강 오상은 예의 큰 줄기이니 삼대가 서로 계승한 것이고, 모두 그대로 따르면서 변경하지 못한 것이다. 덜고 보탬 내용은 조금 지나치거나 부족한 예악·문물제도(文章制度) 등일 뿐이었다.⁸⁾

주자는 『어류』에서 “덜고 보탬’ 예는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시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만, “따름(因)’ 예는 하늘이 만든 것이어서 영원불변하다”⁹⁾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저 강상(綱常, 삼강오상)은 절대로 괴멸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본디 부자(父子)가 있고, 상하(上下)가 있다. 새끼 양은 뿔아얹아 젖을 먹으니, 부자가 있다. 개미는 통솔자와 부하가 있으니, 군신이 있다. 먼저 나오는 것, 뒤에 나오는 것이 있으니, 형제가 있다. 개·말·소·양이 각기 무리를 이루고 대오를 지으니, 봉우가 있다. 진시황은 아버지이고 호해는 아들이며, 부소는 형이고 호해는 동생이니, 이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는다.¹⁰⁾

또 주자는 “이 장에서는 인(因) 자가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손익(損益)도 저 삼강오상을 떠받치려는 것일 따름이다”¹¹⁾고 하면서, 삼강오상 이론의 절대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개미·개·말 등 동물의 세계에도 부분적으로 삼강오상이 존재함을 인증하였고, 참혹한 정치를 펼쳤던 진시황 시대에도 그 윤리는 폐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¹²⁾ 제자들이 인(因)의 내용을 묻자, 주자는 대답한다.

7) 『논어』 2-23, “子張問: ‘十世可知也?’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其或繼周者, 雖百世, 可知也。’”

8) 『논어집주』 2-23, “馬氏曰: ‘所因, 謂三綱五常。所損益, 謂文質三統。’ 愚按: 三綱, 謂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妻綱。五常, 謂仁·義·禮·智·信。……三綱五常, 禮之大體, 三代相繼, 皆因之而不能變。其所損益, 不過文章制度小過不及之間。”

9) 『어류』 24-128, “所因之禮, 是天做底, 萬世不可易; 所損益之禮, 是人做底, 故隨時更變。”

10) 『어류』 24-138, “但這綱常自要壞滅不得, 世間自有父子, 有上下。羔羊跪乳, 便有父子; 螻蟻統屬, 便有君臣; 或居先, 或居後, 便有兄弟; 犬馬牛羊成群連隊, 便有朋友。始皇爲父, 胡亥爲子, 扶蘇爲兄, 胡亥爲弟, 這箇也泯滅不得。……”

11) 『어류』 24-139, “此一章‘因’字最重。所謂損益者, 亦是要扶持箇三綱·五常而已。”

12) 『어류』 24-140, “且如秦最是不善繼周, 酷虐無比。然而所因之禮, 如三綱·五常, 竟滅不得。” 또 주자는 말했다. “가령 진나라가 주나라를 계승하면서, 손익에 부당한 바가 있었으나, 삼강오상은 변경하지는 못하였다. 군신은 여전히 군신이고, 부자는 여전히 부자였다. 다만 좋지 않게 안배되었을 뿐이다. 진나라가 주나라를 잘 계승하지 못해 유래없이 혹독했으나, 삼강오상은 끝내 변경하지 못하였다. ‘알 수 있다’고 하신 성인의 말씀은 삼강오상을 계속 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계절의

삼강오상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경될 수 없었다.¹³⁾

삼강오상은 천만년이 흘러도 멸절될 수 없다.¹⁴⁾

통상 “인(因)”은 앞 시대의 제도를 답습했다는 뜻이다. 왕조나 시대가 바뀐다고 100% 새로운 문화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어서, 앞 시대의 제도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반적 상황을 표현한 말이 “因”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주자는 “인”을,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했다. 마옉의 해설을 따르는 구실을 댔다. “이 장의 의미를 탐구해보았는데 오직 마옉의 설만 옳다”¹⁵⁾는 것이다. 그렇지만 “因” 자로부터 삼강오상을 도출함은 건강부회로 보인다. 주자의 의도는 공자도 삼강오상의 절대적 진리성을 강조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三綱五常의 가치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엿볼 수 있다. 주자는 三綱五常 중 父爲子綱(父子有親)과 夫爲婦綱(夫婦有別)의 경우에는 父/夫의 도리에 비하여 子/婦의 도덕을 압도적으로 많이 강조한다. 반면 君爲臣綱(君臣有義)의 경우는 君臣 쌍방의 도리를 모두 중시했고, 오히려 君의 도리를 은근히 더욱 강조했다.

Ⅲ.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해설

『논어』에서 “정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임금은 신하를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심으로써 섬깁니다(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¹⁶⁾

주자는 『집주』에서 이렇게 해설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치상 당연함이다. 임금과 신하 모두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한다.……

윤돈이 말했다. “군신은 의義로써 맺어진 관계이다. 따라서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부리면, 신하가 임금을 충심으로써 섬긴다(君使臣以禮, 則臣事君以忠).”¹⁷⁾

운행처럼 봄 뒤에 반드시 여름이고, 여름 뒤에 반드시 가을이니, 그 사이에 춥고 더운 어긋난 날씨가 있으나 사계절의 운행은 끝내 변경되지 않음과 같다. 소강절이 시에서 ‘천년만년 흘러도 중원에는 사람이 있다’ 함이 바로 이 뜻이다. (『어류』 24-139) “진나라는 선왕의 법을 짝 끌어버렸다. 그러나 이른바 삼강오상은 소멸된 적이 없다. 예컨대 진나라가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춘 조치는, 임금이 허약하고 신하가 강성했던 주나라 왕실의 폐단을 덜어낸(損) 일이나, 그것은 본디 있던 군신의 예이다. 또 법을 제정하여 부모와 자식 및 남녀 형제가 같은 방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한 일 따위는 본디 있던 부자·형제·부부의 예이다. 이는 천지의 영원한 법도(天地之常經)이다. 은나라가 하나라를 계승하고, 주나라가 은나라를 계승하고, 진나라가 주나라를 계승한 이후 누구도 이것을 변경하지는 못하였다.” (『어류』 24-145)

13) 『어류』 24-127, “三代所因者不易, 而所損益可知, 如何?” 曰: “三綱·五常, 亘古亘今不可易. ……”

14) 『어류』 24-138, “叔蒙問十世所因損益. 曰: “綱常千萬年磨滅不得.”

15) 『문집』 31-21, 「與張敬夫論癸巳論語說」, “嘗究此章之指, 惟古注馬氏得之.”

16) 『논어』 3-19,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17) 『논어집주』, “二者皆理之當然, 各欲自盡而已. ……尹氏曰: ‘君臣, 以義合者也. 故君使臣以禮, 則臣事君以忠.’”

주자는, 공자의 말에 “則” 자 한 글자를 첨가한(“增”) 윤돈의 해설을 살짝 인용해 놓고 있다. 윤돈의 해설은 분명 “한쪽(임금의 도리)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신하의 도리)을 경시한 감이 있다.”¹⁸⁾ 이 문제를 주자 당시에 제자들도 제기하고 있다. 다음 대화를 보자.

“어떤 학자는 윤돈의 이 말을 비판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부리지 않으면,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불충해도 된다는 말인가?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부리지 않으면, 신하는 다만 그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그 설명은 매우 좋다. 하지만 한쪽만 말한 것이다(그런 해설은 너무 일변도로 말한 것이다.).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부리면, 신하가 임금을 충심으로 섬긴다.’는 윤돈의 말은 임금을 일깨우는 뜻도 있으니, 오로지 신하에게만 향한 말이 아니다. 가령 맹자는 ‘임금이 신하를 깨나 말처럼 여기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여긴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어찌 맹자가 신하에게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말이겠는가! 바로 임금이 예로써 신하를 대우하지 않는 일을 경계한 말이다. 임금이면 임금다운 도를 알아야 하니, 신하를 예로써 부리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하이면 신하된 도를 다해야 하니, 임금을 충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군신 상하 모두가 그 도를 다하면, 천하가 어찌 태평하지 않겠는가? 이로써 성인의 말씀은 본말(本末)을 모두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제자의 질문은 “왜 즉(則) 자를 넣어서 해설하느냐?”는 것이었다. 則 자를 넣으면 공자의 말이, 임금의 의무를 선결적으로 우선 요구하는 말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주자는 윤돈의 해설에는 “임금을 일깨우는 뜻도 들어있다”며 윤돈을 변호하지만, 질문의 핵심을 회피한 것이다. 則 자가 없는 공자의 말에도 “임금을 일깨우는 뜻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 주자는 “성인의 말씀은 본말을 모두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얼핏 동문서답처럼 보인다. 則 자를 넣지 않고 원래대로 읽어도 “본말을 모두 갖춘”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말을 모두 갖추었다”는 주자의 뜻은 임금의 의무가 더욱 근본적이니 則 자를 넣어서 읽어야, 본(임금의 도리)과 말(신하의 도리)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니, 이런 해설이 공자의 뜻을 더 잘 드러낸다는 의미일 것이다.

“則 자를 넣어야 공자의 본뜻에 가깝다”는 주자의 대답은 “則 자를 왜 넣었느냐”는 제자의 질문에 나름의 답을 한 셈이다. 그렇지만 공자의 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말이기도 하다. 또 다음 대화를 보자.

“맹자의 저 말²⁰⁾은 모(까칠함)가 있는 것 아닙니까?……(보편적인 진리는 아니고) 맹자가 아마도 오

18) 趙順孫, 『論語纂疏』 3-19, “愚謂: ……尹氏, 以則字介乎其間, 似若舉一而廢一.”

19) 『어류』 25-101, “或說: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講者有以先儒謂君使臣以禮, 則臣事君以忠爲非者. 其言曰: ‘君使臣不以禮, 則臣可以事君而不忠乎! 君使臣不以禮, 臣則有去而已矣. 事之不以忠, 非人臣之所宜爲也.’” 先生曰: ‘此說甚好, 然只說得一邊. 尹氏謂君使臣以禮, 則臣事君以忠, 亦有警君之意, 亦不專主人臣而言也. 如孟子言: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寇讎!’ 此豈孟子教人臣如此哉! 正以警其君之不以禮遇臣下爾. 爲君當知爲君之道, 不可不使臣以禮; 爲臣當盡爲臣之道, 不可不事君以忠. 君臣上下兩盡其道, 天下其有不治者哉! 乃知聖人之言, 本末兩盡.’”

20) 『맹자』 8-3, “孟子告齊宣王曰: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

로지 전국시대의 임금들을 위해 설정했던 말 아닙니까?”

“(아니다.) 도리상 응당 그러해야 한다. 신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임금 또한 어찌 신하를 예로써 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하는 충성만 해야 하고, 임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면, 무도한 임금 쪽에서 신하는 본디 충성해야 하고 자기는 무례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뒷사람은 그 무례함을 멋대로 휘두르게 된다. 후세 사람들은 자기 행실의 (“불충”)혐의만 피하고자 분명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임금이 예를 다하지 않으면 군신 사이에 결말이 좋지 않아 끝내 임금을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임금이 예를 다하게 할 수만 있다면 군신 간은 줄곧 장구할 수 있다.”²¹⁾

임금이 앞장서서 먼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원래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은 군신간의 쌍무적 도리를 병렬했을 뿐이다. 물론 권력자 임금이 약자인 신하에 대한 도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은, 신하가 임금에 대한 도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 보다 더욱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則’ 자를 첨가해서 풀이하는 일은 다른 문제다.

주자는 “궐지증어(闕字增語: 글자를 빼거나 보태어 넣음)”해서 고전을 해설함은 도리어 독자의 의심만 불러일으킨다²²⁾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 비판한 “궐지증어” 방식을 감행한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신의 소명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자는 “임금은 신하의 충성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임금다운 도리를 신하에게 다 해야 한다.” “우리는 임금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은 거부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IV. “必也正名乎” 해설

또 『논어』에서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 임금(출공, 이름 ‘첩’)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하면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²³⁾

주자는 『집주』에서 호안국을 인용하여 이렇게 해설했다.

위나라 세자 ‘괴외’는 자기 어머니인 ‘남자’가 음란함을 부끄럽게 여겨 죽이려고 하다가, 결행하지 못하고 (발각되어) 국외로 달아났다. 영공은 (대신) 공자(公子) ‘영’을 세우려고 했으나, ‘영’이 사양하였다. 영공이 죽자 부인(남자)이 ‘영’을 세웠으나, 또 사양하였다. 할 수 없이 괴외의 아들인 ‘첩’을 왕으로

君如寇讎.”

21) 『어류』 25-102, “義剛因問: ‘孟子此章, 前輩皆謂有圭角, 如何?’ 安卿言: ‘孟子恐只是爲戰國人君而設.’ 曰: ‘也是理當如此. 自人臣言, 固是不可不忠. 但人君亦豈可不使臣以禮! 若只以爲臣下當忠, 而不及人主, 則無道之君聞之, 將謂人臣自是當忠, 我雖無禮亦得. 如此, 則在上者得肆其無禮. 後人好避形跡, 多不肯分明說. 卻不知使上不盡禮, 而致君臣不以善終, 卻是賊其君者也. 若使君能盡禮, 則君臣刻地長久.’”

22) 『문집』 44-49, 「荅江德功」, “其爲闕字增語, 反致讀者之疑多矣.”

23) 『논어』 13-3,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세웠다. 그리하여 아들 첩으로 하여금, 입국하여 왕위를 계승하려는 아버지 괴위를 거부하게(拒, 대적하게) 하였다. 괴위는 어머니를 죽이려 했으니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첩은 나라를 점거하고 아버지를 대적(거부)했으니, 모두 아버지를 무시한(아버지 없는, 無父) 자들이다. 나라를 차지할 자격이 없으니 명명백백하다.

공자는 정치를 할 때 이름을 바로잡는 일(“正名”)을 우선으로 하였다. 반드시 사태의 자초지종을 나열하여 천자에게 고하고 제후에게 청하여, 공자 ‘영’을 명하여 임금 자리에 앉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륜이 바르게 되어 천리를 얻고, 이름은 바르고 말은 순조로워져서 일이 성취된다.……²⁴⁾

주자는 『어류』에서도 “첩”(출공)은 병력을 동원하여 아버지를 대적했다(拒父). 이는 아버지를 역적으로 여김이니, 그 얼마나 불순함(不順, 순리롭지 못함)인가?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백성에 군림하겠는가?”²⁵⁾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또 다음 문답을 보자.

“호씨의 설은 물론 올바릅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나그네신하(羈旅之臣)로서 이미 출공에게 등용되었다면, 그 출공을 축출할 모의를 한다는 것이 어찌 인정에 맞겠습니까? 아마도 공자께서 만약 출공을 섬긴다면 부자간의 윤리를 자세히 설명하여 깨우쳐준 다음에 출공 스스로 거취를 결정케 한 연후에야, ‘영’을 임금 자리에 앉히는 일을 의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대의 설명은 매우 훌륭하다. 성인의 권(權)은 역시 보통사람의 안목으로는 헤아리기 쉽지 않은 내용이 있다.”²⁶⁾

“성인의 권은 보통사람이 헤아리기 어렵다”는 표현은, 출공이든 괴위든 쫓아낸다는 것이 공자의 뜻을 주자가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공자가 출공을 쫓아냄은 사실인데, 왜 그런 일을 감행하는지는 보통사람은 이해할 없는 성인만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 주자는 말한다.

호씨의 논의에 미진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의는 근엄하다. 성인의 신묘한 변통은 본래 헤아리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사로운 식견으로 그 도리를 논할 수는 없다. 만약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의문을 완전히 해소해야만 학문인 것은 아닌 만큼,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내 일신에 절실한 것들부터 우선 연구함이 옳을 것이다.²⁷⁾

24) 『논어집주』 13-3, “胡氏曰: ‘衛世子蒯聵恥其母南子之淫亂, 欲殺之, 不果而出奔. 靈公欲立公子郢, 郢辭. 公卒, 夫人立之, 又辭. 乃立蒯聵之子輒, 以拒蒯聵. 夫蒯聵欲殺母, 得罪於父, 而輒據國以拒父, 皆無父之人也, 其不可有國也明矣. 夫子爲政, 而以正名爲先. 必將具其事之本末, 告諸天王, 請于方伯, 命公子郢而立之. 則人倫正, 天理得, 名正言順而事成矣. ……’”

25) 『어류』 43-14, “若就衛論之, 輒, 子也, 蒯聵是父. 今也, 以兵拒父, 是以父爲賊, 多少不順! 其何以爲國, 何以臨民?”

26) 『문집』 52-3, 「答吳伯豐」, “胡氏之說, 固正矣. 然恐夫子以羈旅之臣, 一旦出公用之而遂謀逐出公, 此豈近於人情? 意者夫子若事出公, 不過具言父子之倫以開曉之, 使出公自爲去就, 然後立郢之事可得而議也.” “此說甚善. 然聖人之權, 亦有未易以常情窺測者.”

27) 『문집』 60-14, 「答程珙」, “示喻正名之說, 胡氏所論固有未盡, 然其大義謹嚴, 而聖人之妙用變通, 又自有不可測者, 不可以私情常識議其方也. 如以爲疑, 則食肉不食馬肝, 未爲不知味, 姑置此而議其切於吾身者焉可也.”

주자는, “출공을 내치는 일”은 “보통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성인 공자의 깊은 뜻”임을 기정사실화한 다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일단 접어두고 꼬치꼬치 따지려들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자는 호안국의 설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다. 그것은 『집주』에 단순히 소개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자 자신의 사상을 확고하게 대변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자는 62세 때도 “호안국의 논설은 지극히 훌륭하다”²⁸⁾고 밝히고 있다.

주자의 논점을 다음과 같다. ‘괴외’든 ‘첩’이든 ‘無父’의 ‘상놈들’이다. 子子하지 못하다. 따라서 그들이 등극해도 君君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정치를 하면 맨 먼저 정명하니, 그들을 모두 내치고, 제3의 인물 공자 ‘영’을 임금 자리에 앉히면, ‘영’은 子子하니 결국 君君하게 된다.

주자의 이러한 해설은 당시 그의 제자들이 이미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에게 정치를 맡긴 그 임금을 쫓아 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질문한다. 주자는 “오직 공자이니까 가능하다.”²⁹⁾고 대답했다. 또 비슷한 질문에 “사리를 따지자면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고 한발 물러나 대답한다. 그렇지만 주자는, 공자가 임금(출공)을 향해 시비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다. 주자는 설명한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벼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내용을 출공에게 고했을 것이다. 만약 그가 듣지 않으면 떠날 뿐이다.³⁰⁾

성인은 틀림없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無父之人)을 북면(北面)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첩’이 개과천선할 뜻이 있었다면, 공자는 틀림없이 먼저 단정적인 약속을 맺은 다음 그와 함께 정치를 할 것이다. ……‘첩’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 공자는 결단코 그의 신하가 되지 않을 것이다.³¹⁾

주자의 이런 해설은, “정치를 맡기면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전제로한 『논어』 원래의 문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주자는 “괴외든 첩(출공)이든, 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들을 회피할 것이다”고 말하며, “만약 공자가 정치를 하면 반드시 위로 천자께 고하고 아래로 방백에 고하여, ‘영’을 발탁하여 임금 자리에 앉혀 모든 일을 올바르게 되돌릴 것이다”³²⁾는 입장을 고수한다. 또 “이치상으로 볼 때, 첩(출공)은 원래부터 임금 자리에 올라서는 안될 인물이었다. 아버지(괴외)를 대적했기(拒) 때문에 비로소 임금 자격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는 제자의 질문에 주자는 적극 동의한다.³³⁾ 또 주자는 말한다.

28) 『어류』 43-19, “胡文定說軫事, 極看得好.”

29) 『어류』 43-15, “問: ‘衛君欲召孔子爲政, 而孔子欲先正名. 孔子既爲之臣, 復欲去出公, 亦豈人情?’ 曰: ‘惟孔子而後可.’”

30) 『어류』 43-21, “問: ‘胡氏云云. 使孔子得政, 則是出公用之也, 如何做得此等事?’ 曰: ‘據事理言之, 合當如此做耳. 使孔子仕衛, 亦必以此事告之出公. 若其不聽, 則去之耳.’”

31) 『어류』 43-20, “聖人必不肯北面無父之人. 若軫有意改過遷善, 則孔子須先與斷約, 如此方與他做. ……若軫不能然, 則孔子決不爲之臣矣.”

32) 『어류』 43-22, “蒯瞶與軫, 若有一人識道理, 各相避就去了. ……若使夫子爲政, 則必上告天子, 下告方伯, 拔郢而立之, 斯爲得正.”

33) 『어류』 43-15, “問: ‘論理, 軾合下便不當立, 不待拒蒯瞶而後爲不當立也.’ 曰: ‘固是. ……’”

“반드시 정명할 것이다” 함은, 공자께서 만약 위나라에 벼슬하시면 반드시 맨 먼저 군신부자의 이름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말이다. 괴외 같은 이는 임금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 첩(출공) 역시 임금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쫓아내고 따로 임금을 세워서 괴외를 대적케(拒) 하실 것이다. 진(晉) 나라 조양(집정대신, 趙簡子)이 괴외를 임금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있다. 성인께서 만약 벼슬하면 반드시 대대적으로 그와 한바탕 결판을 벌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³⁴⁾

명분을 최우선시하는 명분주의자의 모습이다. 다음 대화들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실제로 공자께서 위나라 정치를 하시면 정말로 출공을 쫓아낼까요?”

“성인의 행위(行事, 일처리)는 의리에 합당함 여부만 따지지, 그 가능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만약 매사에 그 가능성을 계산하면, 어찌 이해득실의 사사로운 감정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⁵⁾

“이치를 따지자면 물론 첩도 몰아내고, 위나라 사람들이 나서서 괴외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형편을 살펴보면 진(晉)나라 사람들은 괴외를 옹립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세력이 위나라를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께서 어떻게 천자께 고하고 방백에 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천자도 이미 무얼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태이고, 방백이라야 진(晉)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거늘,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리상 본래 옹당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께서 벼슬하시면 반드시 진나라가 괴외를 편 들지 못하게 조치하실 것이다.”³⁶⁾

제자들이 거듭 질문했지만, 주자는 “이런 의리 문제는 지극히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다만 털끝만한 사심이라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첩이 마음으로 부자간 친애함(父子之親)이 크나큰 도리임을 분명히 살핀다면 단 하루라도 임금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³⁷⁾는 자세를 견지한다.

주자의 이런 해설은 사리·형편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부자간에도 양보하지 않음이 권력의 본질인데 그런 권력 다툼에 공자가 직접 개입한다거나, 심지어 공자가 권력 다툼의 두 당사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제3자를 등극시킨다는 해설은 황당한 空論에 가깝다. 『논어』를 보면 공자는 반란자들(공산불요, 필힐)³⁸⁾의 부름이라도 응하여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칠 생각까지 했다. 임금의 도덕성 문제에는 공자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임금 자격을 是非할 경

34) 『어류』 43-16, “必也正名乎! 孔子若仕衛, 必先正其君臣父子之名. 如蒯瞶不當立, 輒亦不當立, 當去輒而別立君以拒蒯瞶. 晉趙鞅欲立蒯瞶. 聖人出時, 必須大與他剖判一番, 教它知箇是與不是.”

35) 『어류』 43-17, “吳伯英問: ‘若使夫子爲衛政, 不知果能使出公出從蒯瞶否?’ 曰: ‘聖人行事, 只問義之合與不合, 不問其能與不能也. 若使每事只管計較其能與不能, 則豈不惑於常情利害之私乎?’”

36) 『어류』 43-16, “亞夫問: ‘論道理, 固是去輒, 使國人自拒蒯瞶. 以事情論之, 晉人正主蒯瞶, 勢足以壓衛, 聖人如何請于天子, 請于方伯? 天子既自不奈何, 方伯又是晉自做, 如何得?’ 曰: ‘道理自是合如此了. 聖人出來, 須自能使晉不爲蒯瞶.’”

37) 『문집』 39-58, 「答范伯崇」, “義至於此, 已極精微, 但不可有毫髮私意於其間耳. ……故愚竊謂輒之心, 但當只見父子之親爲大, 而不可一日立乎其位.”

38) 『논어』 17-5, “公山弗擾以費畔, 召, 子欲往. ……”; 『논어』 17-7, “佛盼召, 子欲往. ……”

우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공자 자신의 목숨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공자가 이처럼 무모할까?³⁹⁾

둘째, 호안국이 설명하는 당시의 여러 상황들이 사실인지가 불분명하다. 정수덕에 따르면, 과연 괴외가 어머니(南子) 시해를 음모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당시 천자나 제후 방백의 처지가 “정치 대사를 의론하여 결정할 만한” 형편에 있지 않았고, 또 公子 ‘영’은 평상시에도 이미 두 번이나 왕위를 거절했는데, 공자가 설득한다고 부자간 권력다툼이 치열한 분란 중에 등극을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점이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는 왜 이처럼 비현실적이고 몽매하고 비이성적인 주석을 달았을까? 필자는 바로 거기에 주자의 심모원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자는 몽매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는 공자의 사상에 대한 해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려는 것 같다.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기본 도덕적 자질은 신하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 “도덕적 흠결 여부는 신하들이 검열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은 당시 현실에서는 매우 “不順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의 표출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주자는 이중삼중의 보안장치를 두고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내 말이 아니다. 위대한 『춘추』 권위자 호안국 선생의 말이다. 나는 그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다. 호씨가 설마 거짓을 꾸몄겠는가?

둘째, 사실 호안국 개인의 뜻도 아니다. 그는 다만 공자의 뜻이 그러함을 풀이했을 뿐이다.

셋째, 『논어집주』는 아직 완성본이 아니다. 지금 계속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 현재 유통된 『논어집주』는 내가 출판 동의한 것이 아니다.

주자는 『사서집주』 초고를 48세에 완성했고 그 이후 계속 교정했으며 대규모 수정작업을 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책은 중간에 친구 관료들에 의해 판각되어 유포되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주자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나이 57세 때 관료 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다.

전에 저의 경전해설을 보고 싶다 하셨을 때 처음에는 미천한 내용을 감히 보여드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 곧바로 베껴 올려드리고 감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필시 엉터리 오류가 많아 성현의 본 뜻을 놓치고 학생들의 안목을 그르칠 대목이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마시라고 간청했었던 것입니다. 저의 이런 뜻은 한 때의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제 본의가 잘못 전달되어 오늘 뜻밖에도 제 원고가 판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망연자실하여 지금까지도 놀랍고 두

39) 주자의 이런 해설에 대하여 왕양명은 “지극정성으로 예를 다하여 자기를 모셔다 정치를 맡긴, 그 임금을 앞장서서 폐한다는 설명이 어찌 천리 인정에 맞겠는가?”라고 하면서, 공자의 정명이란 “仁孝의 美”를 깨우쳐 그들을 감화시켜 아들다운 아들, 임금다운 임금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해설 역시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박성규, 「공자의 정명의 의미」, 『철학연구』 84, 58-59쪽.

40) 程樹德, 『論語集釋』, 896쪽. 정수덕은 『論語述要』를 인용하여 말했다. “설령 무슨 죄가 있다하더라도, 사태의 자초지종을 나열하여 천자에게 고하고 방백에게 청함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악행을 펴뜨리고 천자와 방백의 명령으로써 토벌한다는 것이니 이보다 더한 패역이 있겠는가? 또 모두 쫓아내면, 공자 ‘영’도 사양하는 만큼, 아무도 등극할 사람이 없어 후계자 미정으로 혼란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도 알 수 없다. 한번 벼슬함으로써 남의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공자가 도모한다는 말인가?”

럽습니다. 애초에 초록해 가신 뜻이 판각에 있었음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태를 너무 늦게 파악하여 후회막급입니다. 이 일의 이해관계는 전번 편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화를 면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사랑 어른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 해주신 바람에 지금 세상의 정황을 고려할 틈도 없이 그 책을 판각하셔서 원근에 유포한다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실제로 世教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분란 일으켜) 임금께 죄를 짓고, 또한 당신은 패당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東京禁錮, 白馬清流의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근세에 정백우·홍경선의 (필화)사건이 떠오릅니다. 또한 경 해설에는 時事 관련 혐의 내용도 들어있는 만큼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윗사람(임금)을 포함한 죄로 형록당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설사 무얼 두려워하여 굳이 회피할 필요가 없다손 치더라도 구태여 간 특한 무리들의 예봉을 도발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판각을 중단하십시오. 이미 작업이 진척되어 官錢을 소비했다면 중단도 쉽지 않겠군요. 제가 상부에 공문을 올려서 압수하여 불태우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지출된 비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비록 가난하여 파산할지라도 납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신의 목전의 이해는 차치하고라도 이 일로 인하여 此道에 무궁한 해악을 남길까 두렵습니다.⁴¹⁾

주자는 판각을 불태우라고 간청했고, 관전(官錢) 비용을 변상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불태웠거나 비용을 변상한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이 편지는 아마 용의주도한 주자가 혹시 모를 필화를 대비하여 변명 거리를 미리 남겨놓기 위해 작성한 뜻도 있었던 것 같다.

주자가 자기 책에, 엮이면 걸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편지다. 필화를 두려워할 만큼 자신의 ‘不順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저서였다는 말이다. 주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두려워했고⁴²⁾ 또 그 이후 수정본에서 어떻게 수정하거나 삭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필자는 주자가 필화를 염려할 만큼 두려워했지만 꼭 넣고 싶었던 내용이, 이 글에서 다룬 『논어』 3-19, 13-3, 8-1의 해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심 사상이므로 두려워했을지언정 삭제하거나 불태울 뜻은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41) 『문집』 27-15 「答詹帥書」. “熹向蒙下諭欲見諸經圖說, 初意淺陋, 不足薦聞. 但謂庶幾因此可以求教, 故即寫呈, 不敢自匿. 然亦自知其間必有乖繆以失聖賢本指・誤學者眼目處, 故嘗布懇, 乞勿示人. 區區此意, 非但爲一時謙遜之美而已也. 不謂誠意不積, 不能動人, 今辱垂諭, 乃聞已遂刊刻. 聞之惘然, 繼以驚懼. 向若預知遣人抄錄之意已出於此, 則其不敢承命固已久矣. 見事之晚, 雖悔莫追. 竊惟此事利害, 如前所陳, 所繫已不細矣. 又況踐迹方以虛聲橫遭口語, 玷黜之禍, 上及前賢, 爲熹之計, 政使深自晦匿, 尙恐未能免禍. 今侍郎丈乃以見愛之深・衛道之切, 不暇以消息盈虛之理推之, 至爲刻畫其書, 流布遠近, 若將以是與之較彊弱・爭勝負者. 熹恐其未能有補於世教, 而適以重不敏之罪, 且於門下亦或未免分朋樹黨之譏. 蓋未論東京禁錮・白馬清流之禍, 而近世程伯禹・洪慶善之事亦可鑒矣. 豈可遽謂今之君子不能爲前日之一德大臣耶? 況所說經固有嫌於時事而不能避忌者(如中庸九經之類), 指爲訕上而加以刑誅, 亦何不可乎? 去歲建昌學官偶爲剽舊作「感興詩」, 遂爲諸生注釋, 以爲謗讟而納之臺諫, 此教官者, 幾與林子方俱被論列, 此尤近事之明鏡. 雖若無足畏避, 然亦何苦而直觸此姦慝之鋒耶? 欲布愚懇, 便乞寢罷其事, 又恐已興工役, 用過官錢, 不可自已. 熹今有公狀申使府, 欲望書押入案, 收索焚毀. 其已用過工費, 仍乞示下實數, 熹雖貧, 破產還納, 所不辭也. 如其不然, 此輩決不但已. 一身目前利害初不足道, 正恐以是反爲此道無窮之害耳.”

42) 주자는 『中庸』 “九經” 부분을 예로 들었지만, 진짜 핵심은 언급조차 못했을 것 같다고 필자는 여긴다.

V. “泰伯，其可謂至德也已矣” 해설

또 『논어』에서 “공자가 말했다. ‘태백의 덕은 지극하다고 할 만하다. 세 번이나 천하를 양보했음에도, 백성들은 칭송할 수조차 없었다.’”⁴³⁾ 주자는 『집주』에서 이렇게 해설했다.

태백은 주나라 태왕의 맏아들이다.……태왕(고공단보)의 세 아들은 맏아들 태백, 둘째 중옹, 셋째 계력이다. 태왕의 시대에 은나라의 도는 침체해 갔으나, 주나라는 날로 강대해졌다. 계력은 다시 아들 창을 낳았는데, 성덕(聖德)이 있었다. 태왕은 그리하여 ‘은나라를 멸하려는 뜻(翦商之志)’을 가졌으나, 태백이 따르지 않았다. 태왕은 마침내 계력에게 자리를 물려주어 ‘창’에게 미치고자 하였다. 태백이 그것을 알아채고, 중옹과 함께 형만(荊蠻)으로 도피하였다. 그리하여 태왕이 계력을 세워, 나라가 ‘창’에게 전해지게 했다. ‘창’이 천하의 삼분의 이를 차지했으니, 그가 문왕이다. 문왕의 아들이 마침내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차지했으니, 그가 무왕이다. 태백의 덕이면, 은·주 교체를 당하여 제후들 조회를 받고 천하를 차지하기에 충분했건만, 버리고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취(양보의 흔적)조차 없었으니, 그 덕이 얼마나 지극한가! 아마 그 마음은 바로 백이·숙제가 (무왕의) 말고삐를 잡은 그 마음이었건만, 태백의 난처함은 더욱더 심한 측면이 있었다. 공자가 탄식하면서도 찬미한 일 역시 당연하다. 태백이 따르지 않은 일은 『춘추전』에 나온다.⁴⁴⁾

“태백이 따르지 않음”(不從)이란 아버지의 “은나라를 멸할 뜻(翦商之志)”을 따르지 않음이라는 해설이다.⁴⁵⁾ 또 주자는 “태왕의 마음이란 곧 무왕의 맹진지심(孟津之心)이었다”⁴⁶⁾고 표현하였다. 맹진은 은왕을 멸하려고 대규모 출정 열병의식을 행했던 장소다.

주자의 이 해설은 후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상지지(翦商之志)가 문제였다. 주자는 『어류』에서도 “태왕(무왕의 증조부)이 은나라 정치가 날로 쇠하여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은을 멸할 뜻(翦商之意)을 가진 것은 지극히 공정한 마음(至公之心)이었다”⁴⁷⁾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주자 비판자들은,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기 전에, 이미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신하로서 은나라를 멸할 역심을 품었다” 식의 해설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한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최술(崔述)이 말했다. “태왕이 계력에게 물려주어 창에게 미치고자 했다”는 『집주』의 설은 『사기』에 근거한다. 『사기』에는 다만 태왕이 ‘내 세대에 흥성해야 하는데 그 일은 창에게 달려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태왕이 “은나라를 멸하려(翦商) 했다”는 말은 없다. 주자가 (임의로) 덧붙인 것이다.……『시』·

43) 『논어』 8-1, “子曰: ‘泰伯，其可謂至德也已矣! 三以天下讓，民無得而稱焉.’”

44) 『논어집주』 8-1, “……大王之時，商道寢衰，而周日強大。季歷又生子昌，有聖德。大王因有翦商之志，而泰伯不從，大王遂欲傳位季歷以及昌。泰伯知之，即與仲雍逃之荊蠻。……”

45) 『어류』 35-10, “若泰伯不從翦商之志，……”

46) 『어류』 35-11, “泰伯之心，即伯夷叩馬之心; 太王之心，即武王孟津之心。……”

47) 『어류』 35-6, “太王見商政日衰，知其不久，是以有翦商之意，亦至公之心也。……”

『맹자』 등의 기록을 보면 태왕(고공단보)은 유랑하며 옮겨다니기에 바빴다. 은나라를 멸할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태왕이 오랑캐 침입을 당하여 기산 아래로 옮겨갔을 무렵, 백성은 많지 않았고 전답도 개간되지 못했다. 왕계에 이르러 산림을 개척했고, 문왕에 이르러 번성했으나 그 영토는 겨우 사방 백리였다. 태왕 시대에 주나라가 어떻게 (『집주』 표현처럼) “날로 강대해질” 수 있었겠는가?”⁴⁸⁾

고염무(顧炎武)가 말했다. “(아버지에 맞선) 태백의 덕을 칭찬하기 위하여, 왕망·조조와 같은 역신(逆臣)의 뜻을 태왕에게 덧씌운 것이 어찌 공자의 입언(立言)의 취지였겠는가?”⁴⁹⁾

진천상(陳天祥)이 말했다. “태왕 시대에 은나라는 아직 주(紂)왕 때처럼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태왕이 정벌 명분도 따지지 않고, 단지 자기 나라의 세력이 강대해졌고, 또 성덕(聖德)이 있는 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천하의 군주를 섬멸하려고(翦滅) 했다면, 어진 사람이 아니다.……문왕은 겨우 사방 백리에서 흥기했으니, 문왕 이전에는 주나라가 한번도 강대한 적이 없었다. 태왕(고공단보)은 오랑캐들 침략을 받아 기산 밑으로 옮겨갔으며, 나라가 작아 큰 적을 피해 다니며 환란을 모면하기에 바빴거늘, 무슨 은나라를 멸할 뜻을 가질 겨를이 있었겠는가?……또 『집주』의 말대로라면 ‘뜻(志)’만 있고, 아직 일은 벌리지도 않았는데, 부자간에 (태백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 문신을 하고 숨을 정도로) 이미 그렇게까지 서로 어긋난 셈이 된다. 태왕이 정말 그 일(은을 멸할 뜻) 때문에 장자를 폐하려 했고, 또 태백이 정말 그 일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이라면,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다. 그런 태백이 무슨 지극한 덕이 있겠는가?”⁵⁰⁾

주자의 해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들이다. 주자의 해설에 무리가 있음을 주자의 제자도 이미 지적했다. 다음 문답을 보자.

“태왕(고공단보)은 오랑캐의 침입을 받고 부득이 기(岐) 땅으로 옮겨갔으니, 당시 나라의 세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어찌 천하를 취할 뜻을 가졌겠습니까?”

“처음 옮겨갈 때와는 규모가 달라졌다. 규모가 세워지면 금방 창대해진다.”⁵¹⁾

주자의 대답은 대충 얼버무린 것이다. 또 제자 이당자(李唐咨)가 “태왕은 이때 오랑캐로부터 도망칠 생각을 가졌었거늘, 무슨 이유로 그 수십년 이전에 은나라를 멸할 뜻을 품게 되었을까요?” 등등의 질문을 하자, 주자는 “그런 식으로 건강부회하지 말라”며 되레 음박지르고 있다.⁵²⁾

정수덕도 주자의 해설에 의문을 표하였다.

48) 崔述, 『考信錄』(程樹德, 『論語集釋』, 508~509쪽에서 재인용.)

49) 顧炎武, 『日知錄』, “今將稱泰伯之德, 而先以莽操之志加諸太王, 豈夫子立言之意哉!”

50) 陳天祥, 『四書辨疑』(정수덕, 『논어집석』, 513쪽에서 재인용)

51) 『어류』 35-9, “又問: ‘太王方爲狄人所侵, 不得已而遷岐, 當時國勢甚弱, 如何便有意於取天下?’ 曰: ‘觀其初遷底規模, 便自不同. 規模才立, 便張大. ……’”

52) 『문집』 57-5, 「答李堯卿」, “……太王既有避狄之心, 何故又萌翦商之志於數十年之前? ……” “……, 不須如此穿鑿附會也.”

당사(愼思, 1681~1767)는 말하기를 “『집주』에 특히 志 한 글자를 첨가한 것은 크나큰 병폐다. 마치 나라를 빼앗을 음모를 쌓고 있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했고, 황간(黃幹, 1152~1221)은 말하기를 “주자가 만년에 진행한 『집주』 개정 작업은 관저(關雎) 장(3-20)에서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태백 장의 주는 역시 정론(定論)이 아니다”고 했다.⁵³⁾

그런데 주자는 69세 때도 “태왕의 전상(翦商)”을 언급한다.⁵⁴⁾ 황간의 말처럼 “주자가 『집주』 교정을 완료하지 못해, 잘못 남겨진” 것 같지는 않다.⁵⁵⁾ 주자의 해설은 주자의 본뜻이 그런 것이고, 그가 꼭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것이다. 주자는 『혹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다.

태왕이 현자(賢子)·성손(聖孫)을 왕위에 세우려고 한 것은, 그 길이 천하를 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 애증이나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 따라서 태백이 떠난 것도 꼬장꼬장함(狷)이 아니었고, 왕계가 왕위를 받아들인 것도 탐욕(貪)이 아니었다.⁵⁶⁾

또 고제(高弟) 진순(陳淳)의 질문과 주자의 대답을 살펴보자.

“당시에 은 왕실이 비록 쇠하기는 했으나 천명의 형세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킬 마음을 품고서 신하로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으니 어찌 사악한 뜻(邪志)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태백이 (그런 아버지 뜻을 살펴) 임금자리를 양보한 것이라면 아버지의 사악한 뜻을 부추긴 꼴이 아니겠습니까?”

“(태왕이) 은나라를 멸함(翦商)’은 『시경』의 말이고⁵⁷⁾, ‘(태백이) 따르지 않음’은 『좌전』의 기록이니, 당시에 어떤 근거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무왕이 태왕·왕계·문왕의 실마리를 계승했다’는 『중용』의 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변란 사태에 대처하는 성인의 자세를 보통사람들의 상식의 틀로써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더욱이 아버지의 사악한 뜻을 부추겼다고 책망하는 것은 잘못이다.”⁵⁸⁾

제자 진순이, 주자의 해설대로라면 태왕의 뜻은 “사악한 뜻”이 되고, 태백의 양보는 그런 아버지의 사악한 뜻을 부추긴 일이라고 심하게 비판을 했음에도, 주자는 전혀 양보하지 않는다.

일찍이 맹자는 무왕이 자신의 임금인 주(紂)를 처형하고 나라를 차지한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仁의 파괴자가 흥적이고, 義의 파괴자가 잔혹자이니, 흥적 겸 잔혹자는 독부(一夫：獨夫)일 뿐이다. 紂라는 독부를

53) 『논어집석』, 511쪽, “愼思云：‘集注……其病尤在添一志字，有似處心積慮陰謀人國者之所爲。’”

54) 『문집』 58-22, “至德之論，……一爲文王而發，則是對武王誓師而言。一爲泰伯而發，則是對太王翦商而言。”

55) 주자의 사위인 황간은 당시 분위기를 의식하여 주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56) 『논어혹문』 8-1, “太王之欲立賢子聖孫，爲其道足以濟天下，而非有愛憎之間，利欲之私也。是以泰伯去之而不爲獨，王季受之而不爲貪。……”

57) 『시』 306, “后稷之孫，實維大王。居岐之陽，實始翦商。至于文武，續大王之緒，……”

58) 『문집』 57-10, “答陳安卿”，“泰伯之事，『集注』云云。當時商室雖衰，天命時勢猶未也。大王乃萌是心，睥睨於其下，豈得不謂之邪志？泰伯固讓，爲成父之邪志，……” “翦商乃詩語，‘不從’亦是『左氏』所記，當時必有所據。……『中庸』言‘武王續太王王季文王之緒’則可見矣。此聖賢處事之變，不可拘以常法處。……尙以成父之邪志責之，誤矣。”

주살(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弑)는 소리는 못 들었다.”⁵⁹⁾

무왕의 증조부 태왕에 대한 주자의 해설은 맹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폭군에 대한 응징은 미리 오래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런 마음에 사심이 없다면 역시 정당한 것이다.”는 파격적인 추론을 담고 있다. 다만 여기서도 주자는 공자의 말을 해설하는 것일 뿐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주자는 태왕을 (성인인) 탕왕·무왕과 같은 반열로 승격시켰다.

태백·문왕·백이·숙제는 “한 가지 불의를 행하고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태왕·탕왕·무왕은 “백성을 위문하고 죄인을 정벌하여 천하를 위해 잔적(殘賊)을 제거한다”는 입장이다.⁶⁰⁾

또 주자는 “태왕의 결단” 행위를 (성인만 발휘할 수 있는) “권(權)” 영역으로 승격시켰다. 제자에게는 “이 문제가 이해 안 되면 일단 접어두고 의문을 파고들지 말고, 되도록 알가알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충고한다.⁶¹⁾ 『논어』 “태백”장에서 주자는 태백을 해설하고 있지만, 오히려 핵심은 태왕에 대한 해설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VI. 맺음말

『논어집주』 13-3에 대하여 모기령은 말하기를 “호안국의 『춘추』 해설은 틀리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데, 주자가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했다”⁶²⁾고 했고, 정수덕은 “호씨의 의론은 황당무계하고 인정에 맞지 않는데, 주자가 살피지 못하고 잘못 채택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책에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논어집석』, 896쪽). 그러나 필자는 주자가 “잘못 인용했거나” “잘못 채택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앞에서 살폈듯이 바로 거기에 주자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었다. 주자의 『논어집주』 해설 방식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본다.

1. “集注”라는 책 이름도 “나의 사상을 담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모았을 뿐이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集注가 “여러 사람들의 주석을 모았다” “집대성했다”는 의미라면 최대한 여러 학설을 모았어야 옳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의 사상을 대변할만한 해설들만 주도면밀하게 선별해 넣었다. 다만 겉으로는 “나는 타인의 설들을 모았을 뿐이다”는 분위기를 지닌다.

2. 주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의 해설이 있으면 가능한 한 그것을 갖다놓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이중삼중의 장점이 있다. (1) 다른 학자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내 해설은 매우 보편적이

59) 『맹자』 2-8,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60) 『어류』 35-5, “太伯文王伯夷叔齊是行一不義, 殺一不辜, 而得天下不爲底道理. 太王湯武是弔民伐罪, 爲天下除殘賊底道理.”

61) 『문집』 62-5, 「答張元德」, “太王王季文武之事, 權也. …… 此義聖人蓋難言之. 若看未透, 且姑置之, 不必深致疑, 亦不必多爲說也.”

62) 毛奇齡, 『四書改錯』, “胡氏註『春秋』無一不錯, 而註偏引之.”

다. (2) 주자의 말이 아님을 독자에게 알려 독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다음 진짜 주자 자신의 속심을 은밀히 독자에게 주입시키는 구도이다. 일단 주자 자신의 속내를 숨길 수 있다. (3) 그러면서도 문제가 되었을 때는 비판(집중공격)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다. 자신의 사상을 직접 표출한 『논어』 8-1 해설의 경우 집중 포격을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논어』 13-3의 호안국의 설도 『논어』 8-1의 해설 못지않게 문제가 많았지만, 주자가 『논어』 8-1의 경우처럼 집중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이런 효과로 여겨진다.

3. 꼭 맘에 드는 다른 사람의 해설이 없는 경우 주자 자신이 적극 자신의 주장을 표출한다. 『논어』 8-1의 해설의 경우가 그러하다.

앞에서 살펴본 “(자기에게 정치를 맡긴) 그 임금을 쫓아낸다”는 해설은 정자나 그의 제자들 중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해설이었고,⁶³⁾ “태왕이 은나라를 멸할 뜻을 가졌다”는 해설도 매우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해설이다. 주자는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면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앞세웠는데, 그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강화시키고 증폭시켰다. 그는 마옹·윤돈·호안국의 설임을, 공자의 사상임을 핑계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개혁하려고 했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자의 『사서집주』가 일단 세상의 교과서가 되면 그 안의 내용은 점차 고정사실로 변한다는 점이다. 가령 『논어』 13-3 해설의 경우 임금의 도덕적 흠결을 시비해서 임금을 쫓아낸다는 것이 공자의 사상으로 정착이 된다는 것이다. 『사서집주』를 배우면서 전부를 암송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다. 실제로 조선의 일부 유학자들은 “子子”하지 못하니 “君君”하지 못하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두 번씩이나 임금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한번은 폭군을, 한번은 멀쩡한 임금을). 이런 거사를 일으키는 신하 유학자들 머리속 혹은 무의식에는 『논어집주』 13-3의 내용이 든든한 뒷배로 자리잡았을지도 모른다. 또 그들 일부는 자기 당파에 유리한 이가 세자로 책봉되도록 상소문 등을 통해 술수를 부린 적도 있다. 이런 일들의 명분을 제공한 것도 저 『집주』 내용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주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임금 권력을 견제하려는 애초의 주자의 구상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의외의 효과를 냈다는 설명도 나을법하다고 여겨진다.

이미 살폈듯이 주자는 『논어』를 해설하면서, 인(因) 자에서 삼강오상을 도출했고, 즉(則) 자를 첨가했으며, 정명(正名)을 “임금의 흠결을 지적하여 쫓아내는 일”로 해설했고, 태백의 덕을 “신하로서 은나라를 멸하려는 아버지의 뜻”과 연계시켰다. 이런 해설들은 뜬금없고, 『논어』의 본뜻과는 무관한 주자 자신의 사상이었다. 그런데 이런 해설들이 들어있는 『논어집주』가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상이 공자의 뜻으로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임금들(현재의 출공과 임금 자리를 되찾으려는 괴외)을 탄핵하는 주자의 논리는 그들 모두 아들답지 못한 불효자라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주자의 패륜 추궁은 집요하고도 준엄했다. 주자는 삼강오상 윤리를 절대적 진리로 강조했다. 이 진리 앞에는 임금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직접 육성으로 누누이 천명한 셈이다. 강상 윤리를 법하면 임금도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사실이 천하에 선포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강상 윤리의 절대성을 강조한 뜻에는 임금 비판의 정당성을 도출하려는 뜻도 숨어있었다.

63) 정자와 그 제자들의 해설 위주로 편집된 주자의 『論語精義』 13-3 내용을 참조.

〈참고문헌〉

朱熹, 『四書章句集注』·『四書或問』·『論孟精義』·『朱子語類』·『朱子文集』,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2.

박성규, 「공자의 정명의 의미」, 『철학연구』 84, 철학연구회, 2009.

이상익, 「주자학에 있어서 君·臣·民 관계」, 『한국철학논집』 27, 2009.

李昤昊, 「『논어집주』의 주석방식과 그 경학사적 계승양상」, 『동양학』 35, 단국대동양학연구소, 2004.

이영호, 「『논어집주』의 성서과정을 통해 본 주자 경학의 특징」, 『한문학보』 9, 우리한문학회, 2003.

주원협, 「『논어집주』의 집주 격식 및 그 의의」, 『안동학연구』 12, 2013.

朱熹(저), 박성규(역), 『논어집주-주자와 제자들의 토론』, 소나무, 2011.

크릴(H.G. Creel)(저), 이성규(역), 『孔子, 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1997.

高尙渠 主編, 『論語歧解輯錄』上下, 中華書局, 2011.

顧炎武, 『日知錄集釋』, 上海古籍出版社, 2006.

金履祥, 『論語集注考證』.

毛奇齡, 『四書改錯』.

王陽明, 『傳習錄』, 『王陽明全集』 上·中·下, 上海古籍出版社, 2011.

程樹德, 『論語集釋』, 中華書局, 1990.

鄭浩, 『論語集注述要』.

趙順孫, 『四書纂疏』.

陳天祥, 『四書辨疑』.

崔述, 『考信錄』.

胡廣, 『論語集注大全』.

胡炳文, 『四書通』.

黃式三, 『論語後案』, 鳳凰出版社, 南京, 2008.

黃懷信, 『論語彙校集釋』, 上海古籍出版社, 2008.

- * 이 논문은 2018년 8월 24일에 투고되어,
2018년 9월 28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8년 10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0월 2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Zhu Xi's Arguments on Limiting the Power of an Absolute Monarch**

Park, Sungkyu*

All of the great Confucian philosophers such as Confucius, Mencius, and Dong Zhongshu have made great achievements in their ideological support to ensure that the power of the monarch is guided in the right direction. Zhu Xi, Confucian scholar of the Song Dynasty, also made many achievements in the monarch's power control. He carefully compiled the Collected Annotations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it, he embraced his own meaningful thought.

For example, Confucius said, "The monarch employs his ministers with propriety; the ministers serve their monarch with good faith." But Zhu Xi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phrase as follows: "If the monarch employs his ministers with propriety, then the ministers serve their monarch with good faith." So he emphasized the monarch's duty more than the ministers' duty.

And Confucius said, "If I rule the country, first of all, I will do the rectification of names." But Zhu Xi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phrase as follows: "The current monarch does not play a proper role, so the monarch must be brought down, and a prince without a moral imperfection must ascend to the throne." So he wanted to open the way for the servants to examine the morality of the monarch.

Zhu Xi tried to reform the real world through his commentary on classics. In that works, he has made considerable success.

[Key Words] Zhu Xi, Confucius, Analects of Confucius, the Collected Annotations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 Power of an Absolute Monarch

* Lecturer, Hongik University